美術史學硏究 第287號 2015. 9, pp. 83~102

淸代 人物版畵의 흐름과 『芥子園畵傳』 四集 人物畵譜

박 도 래 *

Ⅰ. 머리말
Ⅱ. 淸代 人物版畵의 흐름
Ⅲ. 『芥子園畵傳』4集 異本 고찰
1. 1818年版: 嘉慶版 丁皐本
2. 1897年版: 光緖版 巢勳本
Ⅳ. 맺음말

Ⅰ. 머리말

『芥子園畵傳』은 17세기 말-18세기 초에 걸쳐 출간되었던 淸代의 대표적인 畵譜이다. 이후 19세기에 『芥子園畵傳』4집이 간행되었는데, 인물판화의 제작이 성행하는 시기에 새로 관련 내용으로 제작한 것이며 두 개 이상의 異本이 알려져 있다. 두 本 중 1818년(嘉慶 23)에 출간된 서적은 인물화 이론 및 道釋, 故事 인물 판화의 실례로 이루어져 있으며, 1897년(光緖 23)에 출간된 서적은 기존의 『芥子園畵傳』을 임모, 증보하면서 4집으로 역대 인물화론과 人物畵譜 를 추가한 것으로 여기 실린 人物畵譜 의 내용은 1818年版과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淸代 인물판화 연구의 일환으로 『芥子園畵傳』4집으로 통칭되는 이상의 두 畵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두 화보는 기존의 판화집 및 名畵를 차용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관련 판화집도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먼저 淸代 인물판화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하면서 『芥子園畵傳』4집이 출간되었던 시대상

* 홍익대학교 강사

황을 알아보겠다. 다음으로는 『芥子園畵傳』 4집 1818年版(嘉慶版), 1897年版(光緖版)에 대하여 출판 및 서적 구성상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芥子園畵傳』4집과 관련 있는 국내 기존 연구를 보면, 1897年版에 대해 언급하거나 여기에 수록된 海派 관련 揷圖와 19세기말-20세기 초의 한국 회화에서 보이는 유사성에 대해서 논한 경우가 있다.[1] 이에 의하여 1897年版이 소개되었으나 그에 비해 1818年版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상 산수판화 연구에 비해볼 때 인물판화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으며 『芥子園畵傳』3집 출판시기 이후의 淸代 판화 연구 역시 많지 않은 상황이나, 실제로 淸代에 인물화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인물판화 또한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볼 때 관련 제반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淸代 인물판화 연구의 일환으로 『芥子園畵傳』의 후속작을 자칭하는 두 畵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淸代 人物版畵의 흐름

먼저 淸代 人物畵譜의 흐름을 중심으로 『芥子園畵傳』4집이 출간되었던 배경 및 시대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淸代 후기에는 역사, 신화, 문학 속의 영웅, 미인 혹은 儒佛道 관련 인물 등을 제재로 하는 회화가 유행하였으며 이처럼 인물화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물판화 역시 다수 제작되었다. 인물판화는 출판 목적에 따라 감상용 판화집, 문학이나 종교 관련 출판물의 揷圖, 『芥子園畵傳』4집의 경우와 같은 학습용 화보 등등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일반회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功臣, 영웅, 미인, 성현, 儒佛道 관련 종교 인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淸代의 방대한 출판물 揷圖를 포함하면 인물판화의 전모를 한정된 지면에 논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본 연구의 주제인 『芥子園畵傳』4집과 관련된 판화서적을 중심으로 미술사에서 논할 만한 몇 가지 예를 들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

1 허영환은 『芥子園畵傳』의 巢勳臨本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화보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 논한 바 있다. 「芥子園畵傳 연구」, 『美術史學』 5(1993), pp. 57-73. 또한 조선 말기 海上畵派의 영향에 대하여 논하면서 작품 분석에서 巢勳臨本과의 관계를 언급한 연구로는 김현권, 「淸代 海派화풍의 수용과 변천」, 『美術史學硏究』 217·218(1998), pp. 93-124; 최경현, 「조선 말기와 근대 초기의 산수화에 보이는 海上畵派의 영향-上海에서 발간된 畵譜를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15(2002), pp. 221-255; 최경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韓國 人物畵에 보이는 海上畵派 畵風」, 『美術史學硏究』 256(2007), pp. 43-75.

감상용 판화집의 경우 歷代의 뛰어난 인물을 모아서 편집한 서적이 다수를 차지하며, 각각의 화면은 인물 초상에 짧은 전기를 곁들여 구성하는 형태를 가장 흔히 볼 수 있다. 고전적인 傳記 판화의 畵題인 功臣의 경우 잘 알려진 『凌練閣功臣圖』(1668)[2] 이외에 『雲臺二十八將圖』(1846),[3] 『晩笑堂畵傳』(1743)에 포함되어 있는 ≪明太祖功臣圖≫ 등의 예를 비롯해 상당수가 출판되어 淸代에 인기 있는 분야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사나 문학에 등장하는 걸출한 영웅 역시 시대를 막론하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유구한 문예의 소재로, 淸代에는 이러한 영웅 주제의 인물화를 판화집으로 엮어 출판하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으며 『無雙譜』(1690), 『晩笑堂畵傳』, 『劍俠傳』(1856), 『高士傳』(1856),[4] 『白將圖傳』(1870)[5] 등등 많은 서적이 알려져 있다. 明代에는 소설, 희곡 등 통속문학의 插圖가 인물판화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야기의 장면을 묘사하는 형식이 다수를 차지했으나,[6] 淸代 康熙·雍正 시기 이래 이들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無雙譜』를 필두로 영웅 전기류 중심으로 유명 인물의 단독초상을 감상하는 형태의 판화집 출판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도 1 〈項羽〉, 『無雙譜』

이 중 『晩笑堂畵傳』, 『無雙譜』는 당시를 대표하는 인물판화집이기도 하고 이후 『芥子園畵傳』4집에 차용되기도 했으므로 관련사항을 좀 더 살펴보겠다. 『無雙譜』에는 40인의 역대 영웅의 인물화가 소략한 전기와 함께 실렸으며 紹興 출신 인물화가 金古良이 그림을 그렸다(도 1). 『晩笑堂畵傳』은 福建 출신 인물화가 上官周(1665-1749 이후)가 담당했고, 漢 高祖를 필두로 漢代에서 明代까지 역대 文武功臣, 文人, 烈女 등 120인의 전기에 판화를 곁들인 구성이다(도 2).

---

2 唐 太宗의 명에 의해 閻立本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唐代 회화이며, 본문의 목판화집은 淸 康熙 7년에 劉源이 밑그림, 朱圭가 刻工을 담당해 蘇州의 界笏堂에서 출간된 서적이다. 唐代의 개국공신 24인 이외에도 關羽, 觀音像 등이 실려 있다.

3 後漢 明帝가 개국공신 28인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했다는 故事에 근거한 작품으로, 淸 道光26년에 張士葆가 밑그림을 담당하여 목판화집으로 간행되었다.

4 上海 화가 任熊이 그림을 담당한 판화집으로는 본문의 『劍俠傳』, 『高士傳』과 『列仙酒牌』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밖에도 淸末 上海 화가의 인물판화로는 錢慧安의 고사인물도가 포함되어 있는 『錢吉生人物畵譜』(宣統 年間) 등의 예가 있는데, 錢慧安의 회화에 대해서는 趙錫晉 등의 화풍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있다. 최경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韓國 人物畵에 보이는 海上畵派 畵風」, 『美術史學硏究』 256(2007), pp. 68-69 참조.

5 중국 역대의 뛰어난 將帥 100명의 그림을 수록한 판화집으로 淸 同治9년(1870)에 출판되었다.

6 明淸代 통속문학 插圖의 특징에 대해서는 박청아, 「明刊本『西廂記』插圖硏究」, 『美術史硏究』 21(2007), pp. 41-78; 박민정, 「淸代 『紅樓夢』 插圖」, 『忠北史學』 20(2008), pp. 235-288 참조.

도 2 〈班固〉, 『晚笑堂畵傳』

도 3 〈大喬·小喬〉, 『百美新詠(圖傳)』

이들 두 판화집은 발간 당시부터 인기가 있어 乾隆 시기 이래 여러 차례 重刻되거나 도자기의 문양으로도 즐겨 이용되었으며 이후 『芥子園畵傳』4집 1818年版에도 전재되었다. 특히 『無雙譜』, 『凌綠閣功臣圖』 등 다수의 인기 판화집은 석판인쇄술의 도입과 함께 石印本으로 다시 제작되었으며, 필선이나 세부 묘사에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현대의 복제물을 통해 유통되는 인물 도상은 石印本에 기원을 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7]

美人圖 역시 淸代에 크게 유행했던 畵題이기 때문에 관련 주제의 감상용 판화집도 다수 출간되었으며 乾隆 연간의 18세기 중엽 경부터 크게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晚笑堂畵傳』 등의 역사인물 판화집 내에도 여인 부문이 할당되어 있기도 하고, 잘 알려진 『百美新詠(圖傳)』(1755년경)처럼 역사 및 전설 속의 미인들만을 모아 발간한 서적도 다수 출판되었다(도 3). 『百美新詠(圖傳)』은 역사, 전설 등의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유명 미녀 100인의 전기와 함께 삽화를 곁들인 감상용 판화집으로 밑그림은 乾隆 年間의 궁정화가였던 王翬가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다.[8] 大喬·小喬 장면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冷枚(1669

---

7 석판인쇄술(lithography)은 19세기 초 독일에서 Alois Senefelder에 의해 발명되었다. 중국에는 1825년 이후 마카오, 광저우 등을 통해 도입되어 1878년 上海에 點石齋書局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으며, 19세기 말 많은 수의 고전소설 삽화본, 화보 등이 석판으로 번각되거나 새롭게 제작되었다. 潘建國, 「서양 사진 石印術과 근대 중국 고전 소설 삽화본의 부흥」, 『코기토』 66(2009.8), pp. 159-178 참조. 본문에 언급한 판화집들의 石印本은 『喜咏軒叢書』등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한국 근대 회화와 판화 비교 연구 시 근대기 上海에서 새롭게 제작되었던 판화 뿐 아니라 이처럼 당시 새로 복각된 과거 판화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8 『百美新詠』 판본에 대해서는 鄭振鐸은 1755년 初版이 나왔다고 논했으나 小林宏光은 이를 언급하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1805년 서문이 있는 嘉慶本을 原刊으로 간주했다. 鄭振鐸, 『中國古代木刻畵集成』; 小林宏光, 「中國人物版畵試論Ⅱ-丁皐嘉慶版『芥子園畵傳·四集』考-」, 『実践女子大美學美術史學』 第3號(1988), pp. 68-69 참조. 이후의 연구에서는 1755년이 初刊이며 1805년본은 重刻本이라 보고 있다. 滝本弘之 編著, 『中國歷史·文學人物圖典』(東京: 遊子館, 2010), p. 19. 이 이상의 서지학적 판단은 어려우나 1805년본을 열람했을 때(早稲田大学図書館 소장본, 請求記号: へ18 04884) 乾隆년간의 跋文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도 4 〈魚玄機〉, 『歷朝名媛詩詞』

도 5 〈慧能〉, 『佛祖道影』, 1880.

경-1742) 등에 의해서 유행했던 淸代 仕女畵 도상과 우아한 인물표현 등이 수용되어 있는데, 수록된 인물의 양이나 섬세한 판각과 회화 표현의 수준을 볼 때 중국의 美人版畵를 대표하는 작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百美新詠(圖傳)』역시 『芥子園畵傳』4집 1818年版의 제작에 이용된 바 있다.

그밖에 美人圖 판화의 예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던 『歷朝名媛詩詞』(1773)는 역대 여성 시인 58명을 제재로 그림과 그가 쓴 시를 함께 실은 詩畵集 성격의 서적이다. 唐代의 시인 魚玄機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림은 단독인물상 揷圖로 제작되었으며 淸代 仕女畵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도 4). 『秦淮八艷圖詠』(1892) 역시 미인시화집으로 明末淸初 南京(秦淮)에서 이름이 높았던 名妓 8명의 초상판화와 그들이 쓴 시를 함께 실은 형식의 출판물이다. 위에서 언급한 『百美新詠(圖傳)』 역시 嘉慶 年間의 重刊本에서 시가 함께 수록된 바 있어, 이처럼 시와 미인을 함께 감상하도록 구성한 서적이 종종 출판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9]

그밖에 儒佛道 관계 제재의 인물판화 서적 역시 明代 이래로 꾸준히 제작되었으나 대개 嘉慶 시기 이후의 서적이 다수 알려져 있다. 三敎 인물을 집대성한 『三敎原流搜神大全』, 儒敎 聖賢의 초상 판화집인 『聖廟祀典圖考』(1826), 五白羅漢을 수록한 『乾明院羅漢圖錄』(1797), 역대 佛祖의 반신초상과 전기를 수록한 『佛祖道影』(1880, 도 5), 神仙 관계로는 사전 격인 『歷代神仙通鑑』을 비롯해 『道光列仙傳』(1833) 등 많은 판화서적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儒佛道 관련 판화 중에는 현재까지도 출판이나 창작에 이용되고 있는 도상이 많은데, 제작 당시 서적 간 상호전재가 많고 제작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면모를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

9 『歷代名媛詩詞』의 乾隆 刊本은 Harvard Yenching Library 소장본(ID: T5237.08/7163), 石印本은 掃葉山房의 1916년 출판본을 참조하였다.

도 6 〈慧能〉,『釋氏源流』, 1486.

도 7 改琦 밑그림,『紅樓夢圖詠』, 光緖 年間 출판

움이 있다. 淸代에 제작된 儒佛道 관련 판화집 역시 관련인물들을 全身 혹은 半身 초상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略傳을 덧붙인 화면을 모아놓은 형식의 서적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전 시대의 관련 판화는 종교인물 관련 고사를 배경과 함께 이야기의 전개별로 구획을 두어 화면 전체에 복잡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도 6), 점차 간략한 초상으로 인물을 표현하는 경향으로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도 5), 이는 종교관련 서적뿐 아니라 여타 이야기와 결부된 판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추세이다.

한편 통속문학 插圖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康熙 시기 이래 다소 주춤했으나 乾隆 말, 嘉慶 연간 이래 상당수가 제작되었다. 水滸傳, 三國志演義 등 기존의 인기소설 관련 삽화본이나 인물판화집이 새롭게 제작되거나 重刻되었으며『水滸圖贊』(1882),『繪圖三國志演義』(1890) 등의 예가 있다. 새롭게 추가된 인기 문학 畵題로는 乾隆 시기에 대인기를 끌었던 소설 紅樓夢 관련 판화를 들 수 있는데『紅樓夢圖詠』,『紅樓夢散套』,『新評繡像紅樓夢全傳』이외에도 많은 관련 인물판화집이 제작되었다. 당시 성행했던 여인도 화풍을 대표하는 改琦가 밑그림을 그린『紅樓夢圖詠』插圖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형적인 淸代 士女圖 화풍과 유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도 7).

이상으로 淸代에 출간된 인물판화집들의 전체적인 양상을『芥子園畵傳』4集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상에서 논한 여러 서적이 감상용, 삽화용 등으로 제작되었던 것과 달리『芥子園畵傳』4집 人物畵譜는 출판 당시부터 회화 제작을 위한 참고용 교본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도록 하겠다.

Ⅲ. 『芥子園畵傳』 4集 異本 고찰

4集 이전의 『芥子園畵傳』시리즈를 살펴보면, 먼저 初集은 1679년 南京 李漁의 개자원에서 王槪의 밑그림으로 출판한 화보로 내용은 「山水樹石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작 과정에서 明淸代 화가들의 작품 및 기존의 『畵藪』(1597), 『十竹齋箋譜』(1645), 『太平山水圖』(1648) 등 기존의 판화집을 차용하였다.[10] 初集 출간 후 복제명화집 및 회화학습 교본으로 인기를 얻자 1701년경 2집「蘭竹梅菊譜」, 3집「草蟲花卉譜」가 간행되면서 다양한 畵目을 망라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본래 기획사였던 芥子園에서 관여한 『芥子園畵傳』 시리즈의 출판은 이렇게 3집으로 일단락되었으며 이후 1708년, 1782년에 발행된 重刻本, 일본에서의 和刻本 등을 비롯해 계속해서 翻刻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꾸준한 명성을 누리는 화보이다.

이처럼 『芥子園畵傳』이 인기 많은 종합화보이면서도 인물판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淸代 인물화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본용 畵譜의 필요성이 생기자 '芥子園畵傳'이라는 이름에 기대서 人物畵譜를 출간하려는 기획을 생겨났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1818년 蘇州의 小西山房에서 揚州에서 활동했던 초상화가 丁皐가 그림을 담당하여 『芥子園畵傳』4집이라는 타이틀로 人物畵譜가 간행되었으며, 인물화 이론에 이어 道釋, 故事, 美人 등 대표적인 人物畵題 판화의 실례가 수록되었다.[11] 한편 淸末의 1888년에는 嘉興 출신 화가 巢勳(1852–1917)이 『芥子園畵傳』1–3集을 臨模하고 名家의 회화를 增補하여 石版印刷 기법으로 새로운 本을 출판하였다. 이어서 몇 년 후 1897년에는 4집으로 人物畵譜를 내놓았는데, 1818年版에 실린 이론편의 일부를 차용하기도 했지만 揷圖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으로 실었다.[12] 이처럼 두 서적의 세부내용은 상이하지만 구성은 卷頭에 인물화 제작에 대한 이론과 기법 면에 대한 글을 싣고 인물화 실례들을 수록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과거 『芥子園畵傳』 제작 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들 두 人物畵譜는 앞 장에서 언급한 기존의 판화집 및 일반 인물화 작품 등을 모방하여 제작되었다. 다음으로는 각 本

---

10 石峻, 「≪芥子園≫初集圖譜之來源」, 『書畵論稿』(臺北: 華正書局, 1982), pp. 186–189; 박도래, 「蕭雲從(1596~1669)의 산수화와 『太平山水圖』판화」, 『美術史學硏究』 254(2007), pp. 96–97.

11 1818年版은 中國國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밖에 『芥子園畵譜人物』(影印本; 天津古籍出版社, 1990) 및 森田但山 譯, 『邦譯芥子園人物畵譜』(東京: 漢畵硏究會, 1917)을 참조하였다.

12 이 글에서는 편의상 출간된 해와 그림 담당자의 이름에 의해 1818年版을 嘉慶版·丁皐本으로, 1897年版을 光緖版·巢勳本으로 칭하겠다. 1897年版은 1924년 인쇄본이 中國國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芥子園畵傳: 巢勛臨本』(影印本; 人民美術出版社 , 1960)을 주로 참조하였다.

별로 화보의 내용 및 근거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1818年版: 嘉慶版 丁皐本

『芥子園畵傳』4집 嘉慶版 丁皐本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卷에 해당하는 '寫眞秘訣'은 이론편이며, 이후 2卷 仙佛傳, 3卷 賢俊傳, 4卷 美人傳 부분에는 각각 주제별로 인물화의 실례를 수록하였다. 1卷에 실린 倪模의 서문에는 "옛부터 畵史와 畵傳은 인물 부분을 畵題의 분류에서 첫 번째로 든다. 그런데도 芥子園畵傳 初集은 산수화보이고 2, 3집은 넓은 의미에서 화조화보로 人物畵譜는 없다. 화가는 제자에게 화법을 말로 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물화를 위한 전문서가 없었다. 이 4집이야말로 산수와 화조에 이을만한 것이다."라고[13] 하여 人物畵譜 를 출판한 동기를 밝히고 있어서 口傳보다 널리 인물화법을 전수할 수 있도록 회화 학습서를 출판하고자 했노라는 기획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먼저 1卷 '寫眞秘訣'은 丁皐가 인물화 作法에 있어서 秘訣에 대하여 쓴 것이며, 顔面 세부의 표현법이라든지 각 分面과 자세를 그리는 법 등에 대하여 插圖와 함께 지침을 제시하였다.[14] 다음으로 2卷, 3卷, 4卷에는 분야별로 인물 판화의 실례가 수록되었는데, 모두 기존 明淸代 판화집의 장면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다. 2卷 '仙佛傳'에는 仙人 23인, 佛祖 18인의 插圖가 전기와 함께 실려 있으며 이

도 8 〈呂洞賓,〉『仙佛奇踪』三版本

도 9 〈呂洞賓〉, 『芥子園畵傳』4집 嘉慶版

13 小林宏光, 金明仙 譯, 『中國의 傳統版畵』(時空社, 2002), p. 160.

14 趙錫晉이 1818年版 『芥子園畵傳』4집의 '寫眞秘訣' 부분을 차용하여 작화에 참고했다고 연구된 바 있다. 최경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韓國 人物畵에 보이는 海上畵派 畵風」, 『美術史學硏究』 256(2007), pp. 64-65 참조.

들은 모두 『仙佛奇踪』 三板本에서 가져왔다.[15] 대부분의 插圖에서 인물도상과 화면구성은 『仙佛奇踪』의 원형을 그대로 따랐으며, 呂洞賓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배경의 변화를 준 경우가 일부 있는 정도이다(도 8, 도 9). 한편 『仙佛奇踪』의 도상 및 회화적인 표현에는 浙派系 도석인물화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嘉慶版 仙佛傳 역시 浙派의 경향을 어느 정도 이어받게 되었을 것이라 보인다.[16]

3卷 「賢俊傳」은 앞 장에서 소개했던 淸代의 康熙–乾隆 시기의 대표적인 영웅전기류 인물판화집 『晩笑堂畵傳』과 『無雙譜』의 장면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17] 「賢俊傳」에 수록된 38개의 판화 중 대다수인 35 장면을 『晩笑堂畵傳』으로부터 가져왔으며(도 2, 도 10), 班固 장면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1818年版의 도상은 원형을 비교적 충실히 따랐지만 모방 과정에서 필선이 간략해지고 안면표현이 어색해지는 등 다소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賢俊傳」의 나머지 3장면은 『無雙譜』로부터 가져왔다. 『晩笑堂畵傳』에서 대부분 장면을 전재하면서도, 여기 실린 점잖지만 당당하게 술잔을 든 영웅적인 李白 이미지를 굳이 빼고 『無雙譜』에 게재된 취해서 잠든 飮中八仙 이미지의 李白을 선택한 것이 당시 시대의 취향을 반영한 것인지 개인의 선호에 따른 것인지 흥미로운 지점이다(도 11, 12, 13).[18] 마지막으로 4卷의 「美人傳」은 앞 장에서 언급했던 『百美新詠(圖傳)』의 내용 중 일부를 뽑아서 제작하였으며, 역사, 전설상의 유명한 미

도 10 〈班固〉, 『芥子園畵傳』4집 嘉慶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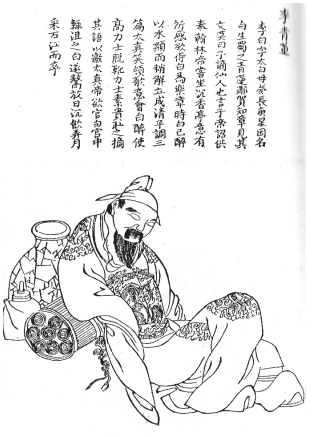
15 『仙佛奇踪』은 몇 차례 새로운 판본으로 출간되었는데, 嘉慶版 丁皐本 「仙佛傳」은 그 중 18세기 초가 제작 하한인 三板本에서 도상을 가지고 온 것이며 비슷한 시대인 1833년의 『列仙傳』 역시 三板本의 도상을 취하였다. 『仙佛奇踪』 三板本은 이후 근대기에 석판본으로 재출간되었으며 이것이 현재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판본이다. 박도래, 「『仙佛奇踪』插圖 硏究」, 『美術史學硏究』 269(2011), pp. 138–141 참조.

16 박도래, 위의 논문, pp. 143–146.

17 「賢俊傳」 38장면 중 『晩笑堂畵傳』으로부터 漢高祖, 張文成, 嚴子陵, 班固, 龐德公, 諸葛忠武, 陶靖節, 王右軍, 遠公, 韓文公, 柳柳州, 王子安, 駱賓王, 王摩詰, 杜工部, 劉禹錫, 張中丞, 顔文忠, 郭忠武, 歐陽文忠, 蘇文公, 蘇文忠公, 蘇文定公, 王文公, 狄武襄, 司馬文正, 岳忠武王, 文信工, 于忠肅, 黔寧王沐英, 宋濂, 周顚, 王文成, 楊忠愍 이상 35인을, 『無雙譜』에서 項籍, 伏生, 李白의 3인을 전재하였다. 다만 『無雙譜』에서 가져온 인물들 간의 큰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굳이 『晩笑堂畵傳』의 동일 장면을 쓰지 않은 이유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18 李白이 다양한 유형의 시각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회화작품들에 대한 논의로는 유순영, 「李白의 이미지 유형과 이백 문학의 회화」, 『美術史學硏究』 274(2012), pp. 111–147 참조.

도 11 〈李白〉, 『晩笑堂畵傳』



도 12 〈李白〉, 『無雙譜』

도 13 〈李白〉, 『芥子園畵傳』4집 嘉慶版

도 14 〈大喬·小喬〉, 『芥子園畵傳』4집 嘉慶版

인을 소재로 26장을 실었다.[19] 『百美新詠(圖傳)』을 모본으로 함에 따라 淸代 仕女畵의 도상이나 인물 묘사 등의 경향이 반영되었지만 大喬·小喬 장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눈매나 옷주름 등의 표현에 있어서 원판의 생동감은 다소 줄어들었다고 보인다(도 3, 도 14).

이상과 같이 『芥子園畵傳』 嘉慶 丁皐本의 경우 각 섹션의 주제에 따라 대표적인 明淸代의 판화집을 차용했으며, 따라서 각 장마다 浙派風의 道釋畵로부터 淸 후기의 仕女畵에 이르기까지 화풍 및 시대감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특색에 대하여 明末에서 淸 후반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가장 인기를 끌었던 畵題의 인물판화집을 선택하여 전거로 삼았던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고 중국 인물화의 전체적인 추세를 인식한 취사선택이라 해석하기도 한다.[20] 嘉慶版의 경우 이처럼 인물화사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으며 후대에 이를 전수하는 회화 교본으로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다만 전반적으로 인물 표현상의 형식화가 심하고 필선이

19 『百美新詠(圖傳)』수록 장면으로부터 娥皇女英, 織女, 西施. 虞姬, 莫瓊樹. 董雙成, 麗娟, 班婕妤, 曹大家, 孫夫人, 大喬·小喬, 卓文君, 壽陽公主, 馮小憐, 樂昌公主, 吳絳仙, 武則天. 梅妃. 飛鸞·輕鳳, 關盼盼, 宮娘, 朱淑眞, 凝香兒, 薛濤의 장면을 선택했다.

20 小林宏光, 앞의 책, p. 162.

살아 있지 못한 면이 있는데 이는 모방 제작본이 갖는 한계일 것이다. 또한 각 장에서 歷史故事·道釋 관계 인물, 美人 등 중국 인물화의 주요 주제를 망라하였으나 여타 淸代 판화집에서 즐겨 다루어졌던 聖賢 제재의 판화는 누락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다.

2. 1897年版: 光緖版 巢勳本

다음으로는 『芥子園畵傳』光緖版 巢勳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巢勳本 卷頭에는 기존의 『芥子園畵傳』에 실려 있는 李漁의 서문 이외에 1887년 1-3集을 새로 제작할 당시 추가된 何鏞의 서문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기존의 판본이 번각을 거듭함에 따라 아름다움을 잃었으며 이에 따라 巢勳이 소장하고 있는 본을 임모하였고 海上畵家들의 畵稿를 더했다고 한다.[21] 서문의 내용처럼 기존의 『芥子園畵傳』1, 2, 3集을 임모해 새로 제작하고 각 集마다 「增廣名家畵譜」라는 표제 하에 동시대의 회화를 추가해 증보, 1888년에 출간하였다. 기존 『芥子園畵傳』을 복제한 부분 이외의 내용을 살펴보면, 山水에 해당하는 1集의 「增廣名家畵譜」는 任伯年, 吳穀祥, 王冶梅, 沈景, 巢勳 등 淸 末 당시의 화가들이 倣한 宋元明代에서 淸初까지의 산수화 6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3집에도 기존 장면 이외에 上海 화가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작품들이 추가되었는데, 四君子 편에도 徐允臨, 高不危, 楊伯潤 등의 46점, 3집 花卉, 翎毛 편에도 任伯年, 虛谷, 吳昌碩, 王冶梅, 巢勳 등의 106점이 증보되었다.

1897년에 제작된 人物畵譜인 4집 첫머리에는 淸末의 文人 張鳴珂 등 3인이 쓴 序文이 있으며, 이어서 卷一은 이론편인 「歷代各家論畵」로 唐代의 裵孝源, 張彥遠에서 淸代의 沈宗騫에 이르기까지 역대 화론서에서 발췌한 33편의 인물화 관련 論畵가 수록되어 있다. 卷二에는 「各家傳神秘訣」이라는 표제 아래 宋代에서 淸代까지의 인물화 作畵에 대한 論畵를 시대 순으로 실었으며, 蘇軾의 「論傳神」, 陳造의 「論寫神」, 元代 초상화가 王繹의 「寫像秘訣」, 淸代 화론으로는 沈宗騫의 「論傳神」및 丁皐의 「寫照提綱」등이 수록되었다. 卷三에는 1818年 嘉慶版 『芥子園畵傳』 4집에 실린 丁皐의 「寫眞秘訣」을 附圖와 함께 재록하였으며, 여기까지는 인물화 제작에 앞서 체득해야 할 이론 편 및 구체적인 作畵의 지침을 논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어서 인물화의 실제 작례들이 「摹倣各家畵譜」 및 「增廣名家畵譜」에 수록되어 있으며 책 마지막에는 巢勳 등 3인이 跋을 실었다.

「摹倣各家畵譜」는 巢勳本의 4집에서 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며, 역대 화가들의 名畵 혹은 名畵를 倣한 작품, 동시대 화가들의 작품 등 기존 회화를 복제한

---

21 허영환, 앞의 논문, p. 61.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唐代에서 元代까지의 화가는 대체로 시대 순으로 실려 있는 편이다. 吳道子의 佛畵 3점 및 先賢圖 1점, 韓幹의 牧馬圖, 貫休의 16羅漢圖, 李公麟의 72賢人圖 및 23觀音圖, 趙孟頫의 無量壽佛·關羽·東坡笠屐圖를 비롯한 6점 등이 실려 있으며, 이들을 위시하여 宋, 元代 작가의 이름하에 실려 있는 회화는 272점에 달한다. 이 중에는 貫休의 羅漢圖처럼 원 작가의 화풍과의 관련이 뚜렷이 보이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 반면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吳道子가 불화를 잘 그렸다든지 韓幹이 말을 잘 그렸다든지 하는 식으로 크게 보아 각 화가의 長技로 알려져 있는 畵目이나 畵名에 의거하여 작품을 선택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李公麟, 趙孟頫의 그림이 다수 수록된 것에 비해 宋代 화원화가들의 이름이나 관련 인물화, 元代를 대표하는 顔輝 계열의 神仙圖 등은 전혀 실려 있지 않다는 점이 특이하며 편집자가 문인화가의 이름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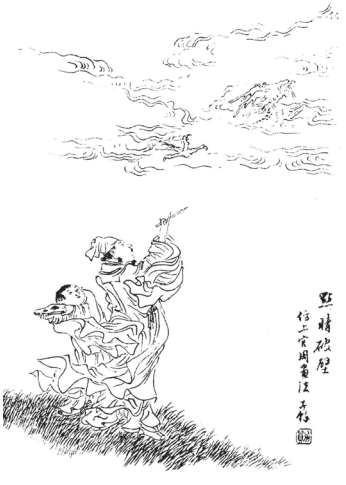
明代 인물화는 그리 많이 실려 있지 않으나 沈周, 文徵明, 仇英, 唐寅, 謝時臣 등의 작품이라고 하여 蘇州 화가들의 작품이 소수 수록되었다. 표방하는 작가의 원래 화풍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의문이지만 그래도 仇英, 唐寅에게 여인도를, 文徵明에게 赤壁圖를 할애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특징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明代 회화 부분에도 道釋, 故事人物畵에서 一家를 이루는 浙派 관련 작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편찬자가 직업화가나 浙派계 화가보다는 문인화가나 吳 지역 화가들을 보다 선호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이는 『仙佛奇踪』에서 道釋人物 장면을 재록함으로써 浙派系 道釋畵의 경향을 보여주는 嘉慶版 丁皐本 仙佛傳과의 차이점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嘉慶版의 이론편을 전재하면서도 揷圖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구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한편 明末淸初 陳洪綬의 ≪九歌圖≫를 전체 임모하여 실었는데, 陳洪綬 작품의 비중이 큰 것은 당시 上海에서 그의 화풍이 인기가 높았던 현상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22]

마지막으로 光緖版 4集에 복제된 淸代의 회화를 살펴보면, 仕女 부문의 분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歷史, 故事, 道釋인물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화면들은 비교적 가까운 시대의 회화를 전재한 부분이라서 그런지 증보된 분량도 많고 위에서 논한 明代 이전 부분에 비해서 다양한 계층의 화가 작품들이 실려 있으며 당시 유행했던 제재나 화풍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歷史, 故事 주제의 경우 禹之鼎, 費丹旭, 任熊, 任伯年 등 당시 관련 畵題로 유명했던 작가들의 작품이 실려 있으며 文昌帝君, 壽星, 鐘馗, 文姬, 蘇軾 등등 고전적인 인물화 주제의 그림들이 망라되어 있다. 일례

22 上海에서 陳洪綬 풍의 판화가 성행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최경현, 앞의 논문, pp. 50-51 참조.

도 15 任熊, 〈洗馬圖〉, 『芥子園畵傳』 4집 光緖版

도 16 任熊, ≪人物畵冊≫, 廣州美術館.



도 17 〈倣上官周人物〉, 『芥子園畵傳』 4집 光緖版

도 18 上官周, ≪人物故事圖冊≫, 中國美術館.

로 任熊 이름으로 수록된 장면과(도 15) ≪人物畵冊≫(廣州美術館, 도 16), '倣上官周作'이라 실린 화면과(도 17) 上官周의 ≪人物故事圖冊≫(中國美術館, 도 18) 등을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듯이 현재 알려진 작품과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수이다.[23]

仕女 부문에는 費丹旭, 改琦, 馮箕, 任頤 등 여인 그림으로 잘 알려진 18~19세기 작가들의 仕女畵를 다수

23 光緖版 巢勳本에 게재된 任熊 작품과 ≪人物畵冊≫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小林宏光, 「巢勳臨本『芥子園畵傳四集』考-清末人物畵の諸相」, 『実践女子大学文學部紀要』 33集(1991), pp. 40-41 참조..

도 19 馮箕, 〈仕女〉, 『芥子園畵傳』 4집 光緖版

도 20 張淇, 〈仕女圖〉 1822, 无錫市博物館

실었으며 淸代 미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 표현, 화면구성, 畵題 등 당시 회화의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도 19, 도 20). 이처럼 光緖版에서는 본 판화집의 제작연대보다 다소 이른 淸代 후반 작품에서 유사한 화면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어서 제작 당시 流轉되던 유명 작품을 모방해 제작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작과정을 통해 복제품이나마 좀 더 수월하게 회화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芥子園畵傳』4集 光緖版 巢勳本은 회화 장르마다 새로운 화단의 경향을 보여주는 화면들을 추가하였고 기존 체제에서 빠져 있던 人物畵譜까지 새롭게 제작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전의 출판본에 비하여 필선이나 묘사가 간략한 면도 있으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淸代 人物版畵의 흐름과 함께 『芥子園畵傳』4集을 표제로 발간된 19세기의 두 人物畵譜들에 대하여 동시대 화단의 상황, 서적의 내용과 구성 및 각 장면의 출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818년 嘉慶版은 淸 후기 인물화 및 인물판화집, 揷圖 서적 등이 인기를 끌면서 회화학습용의 화보로 기획된 서적이며, 기존의 『芥子園畵傳』 시리즈에 인물편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명세를 빌리기 위해 이름을 차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수록된 판화의 화면은 『仙佛奇踪, 『晩笑堂畵傳』, 『無雙譜』, 『百美新詠(圖傳)』등 기존의 인기 인

물판화집으로부터 화면을 발췌, 임모하여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제작 방식에 따라 嘉慶版 수록 판화에는 浙派系 道釋畵, 淸代의 功臣圖 및 美人圖의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1897년 光緖版 巢勳本은 기존 화보를 石印으로 복각하면서 淸末 인물화 수요 증가에 힘입어 人物畵譜 부분을 추가한 것이다. 역대 인물화론을 정리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실었고 名畵와 판화집의 복제를 통해 제작하여 작화지침서 뿐만이 아니라 복제명화집으로 기능하였으며 특히 淸末 인물화의 새로운 동시대 경향을 빠르게 반영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光緖版은 唐代에서 元代까지는 역대 명가의 대표적 특징에 의거한 화면을 게재하는 한편 元明代 인물화의 경우 문인화가 위주로 선별하였고 淸代 회화의 경우 淸 후반에 크게 유행했던 仕女畵 및 歷史, 故事人物畵의 특색을 비교적 잘 전달하였다. 이상의 두 『芥子園畵傳』4集은 기존의 名畵 및 판화집에 근거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창조적인 작품이라 하기는 어렵겠지만, 복제명화집·회화학습용 화보류 등의 출판에서 관행이 되어왔던 제작방식이나 이에 따른 회화 감상형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예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芥子園畵傳』의 두 19세기 異本을 중심으로 淸代의 인물판화 간행 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19세기 이래 『芥子園畵傳』4집이라는 명칭으로 여러 서적이 혼용되고 있어 관련 사항을 명확히 밝혀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淸代 人物版畵 연구는 중국 내의 회화 연구 뿐 아니라 19세기 한국, 일본 등에서도 故事·道釋 人物畵가 성행했다는 점을 볼 때 선행되어야 될 연구 과제의 하나로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인물화 연구에서 17세기경부터 출판되었던 『仙佛奇踪』, 『三才圖會』 등의 도상과 後代 인물화를 막연하게 관련짓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들 판화집은 세월을 거치며 여러 차례 重刻되면서 변화를 겪기도 했고 본문에서 살펴본 19세기의 人物畵譜를 비롯해 여러 판화집에 차용되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韓中 미술의 비교연구를 위시하여 그간 판화 연구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왔으나 人物版畵 연구의 비중이 다소 적으므로 향후 개별 人物版畵集에 대한 심층 연구를 비롯해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주제어(Key Words)**_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 Jieziyuan Huazhuan), 화보(畵譜, art book), 판화(版畵, printmaking), 인물판화(人物版畵, figure prints), 인물화(人物畵, figure painting), 출판물(出版物, publication)

▌투고일 2015년 6월 27일 | 심사개시일 2015년 6월 29일 | 심사완료일 2015년 7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1일 ▌

참고문헌

『芥子園畵譜人物』, 天津古籍出版社, 1990.

森田但山 譯, 『邦譯芥子園人物畵譜』, 東京: 漢畵硏究會, 1917.

_____, 『芥子園畵傳 上: 山水篇』, 東京: 三笠書房, 1935-36.

_____, 『芥子園畵傳 下: 人物篇』, 東京: 三笠書房, 1935-36.

『芥子園畵傳: 巢勛臨本』1-4,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 1960.

『芥子園畵傳』, 『中國古畵譜集成』第12卷, 濟南: 山東美術出版社, 2000.

『洪氏仙佛奇踪』, 『道藏精華』第5集4卷, 臺北: 自由出版社, 1988.

『無雙譜』, 『喜咏軒叢書成』28, 1929.

『無雙譜』, 『中國古畵譜集成』第3卷, 濟南: 山東美術出版社, 2000.

『晩笑堂畵傳』, Harvard Yenching Library 所藏.

『晩笑堂畵傳』, 『中國古畵譜集成』第6卷, 濟南: 山東美術出版社, 2000.

『百美新詠』, 早稲田大学図書館 所藏.

『百美圖譜』, 『中國古畵譜集成』第7卷, 濟南: 山東美術出版社, 2000.

『歷代名媛詩詞』, Harvard Yenching Library 所藏.

『歷代名媛詩詞』 卷1-12, 上海: 掃葉山房, 1916.

최경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韓國 人物畵에 보이는 海上畵派 畵風」, 『美術史學硏究』 256, 2007, pp. 43-75.

_____, 「19세기 후반 上海에서 발간된 畵譜들과 韓國 畵壇」,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9, 2008, pp. 7-28.

허영환, 「芥子園畵傳 연구」, 『美術史學』 5, 1993, pp. 57-73.

橋本綾子, 「新出の『芥子園畵傳』をめぐって」, 『大和文化』 64, 1983, pp. 1-19.

滝本弘之 編著, 『中國神話·傳說人物圖典』, 東京: 遊子館, 2010.

_____ 編著, 『中國歷史·文學人物圖典』, 東京: 遊子館, 2010.

小林宏光, 金明仙 譯, 『中國의 傳統版畵』, 時空社, 2002.

_____, 「中國人物版畵試論Ⅱ-丁皐嘉慶版『芥子園畵傳·四集』考-」, 『実践女子大美學美術史學』 第3號, 1988, pp. 53-69.

_____, 「明淸人物版畵の特質と發展狀況: 萬曆期版畵, 陳洪綬から任熊まで」, 『中國古代版畵展』, 町田: 町田市立國際版畵美術, 1988, pp. 41-49.

_____, 「巢勳臨本『芥子園畵傳四集』考-淸末人物畵の諸相」, 『実践女子大学文學部紀要』 33集, 1991, pp. 29-50.

鶴田武良,「『芥子園畵傳』について−その成立と江戸畵壇への影響」,『美術研究』283, 1973, pp. 81−92.
『道教と美術』, 大阪: 大阪市立美術館, 2009.

국문초록

『芥子園畵傳』은 淸代의 대표적인 畵譜 시리즈로 산수화보, 사군자, 화훼영모 편이 차례로 출간되었는데, 19세기에 들어 『芥子園畵傳』4집이라 자칭하는 인물화보들이 등장했다. 淸代 후기에는 다양한 제재의 인물화가 크게 유행하였으며 인물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화보의 필요성이 생기자 기존 『芥子園畵傳』에 인물화 부분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이름을 차용해 인물화보를 출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淸代에는 인물화가 유행하면서 人物版畵가 다수 제작되었는데 『凌煙閣功臣圖』, 『無雙譜』, 『晩笑堂畵傳』, 『百美新詠』 등 인물화의 대표적인 畵題를 소재로 수많은 감상용 판화집이 출간되었으며, 『芥子園畵傳』4집처럼 회화 제작을 위한 참고용 교본으로 제작된 경우도 있다. 『芥子園畵傳』4집으로 통칭되는 서적으로는 1818년(嘉慶23) 간행본, 1897년(光緖 23) 간행본 등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각 서적은 卷頭에 인물화 제작에 대한 이론과 기법 면에 대한 글을 싣고 歷代 및 동시대 名家의 인물화 실례들을 수록하는 식으로 구성되었는데, 기존의 유명 판화집으로부터 장면을 차용하거나 名畵를 복제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당시 인물화 경향이나 판화제작의 관행을 살펴볼 수 있는 예시가 되며 회화교습서 뿐 아니라 복제명화집으로도 기능하였다.

Abstract

Figure Prints of the Qing Period and *Jieziyuan Huazhuan* Volume Four

Park Dorae *

Jieziyuan Huazhuan (芥子園畵傳, The Mustard Seed Garden Manual of Painting) was a representative art book series of the Qing period that included a series of three art books each featuring landscape, the Four Gracious Plants, and flora and fauna. In the 19th century, a number of figure painting manual books appeared and claimed to be the fourth volume of the series. Figure paintings of various subjects became a popular trend in the late Qing period, and the rising demand for figure paintings led to need for an art book dedicated to the genre. It is estimated that the figure painting manual books were published borrowing the name of *Jieziyuan Huazhuan*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original series did not include figure paintings. The Qing period also saw the production of figure prints in large quantities. A great number of figure painting manual books for appreciation purposes were published using prevalent figure images such as Líng *Liàn Gé Gōngchén Tú* (凌練閣功臣圖), *Wú Shuāng Pǔ* (無雙譜), *Wǎn Xiào Táng Huà Chuán* (晚笑堂畵傳), and *Bǎi Měi Xīn Yǒng Túpǔ* (百美新詠圖譜), some of which were produced as a reference manual for art production, as with the fourth volume of *Jieziyuan Huazhuan*. Among book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fourth volume of *Jieziyuan Huazhuan*, publications of 1818 and 1897 are the most well-known. The publications were composed of texts in the beginning explaining the theories and techniques of figure painting production and examples of figure paintings by famous artists from previous and contemporary generations. Since these publications included excerpts from existing famous print books or replica of celebrated paintings, they

* Lecturer, Hongik University

were viewed not only as painting manuals but also replica books of celebrated paintings, and also demonstrate trends in the genre of figure painting and practices in printmaking at that time.